

**2023년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

**2023년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

2023. 10.

**visible ex**

talk!

2023 안산시 청년정책 토론회



## 목차

### 1. 행사 개요

### 2. 추진 과정

- 2.1. 의제 선정
- 2.2. 토론 참여자 그룹 편성
- 2.3. 토론 진행을 위한 방법론
- 2.4. 행사 일정

### 3. 의제별 토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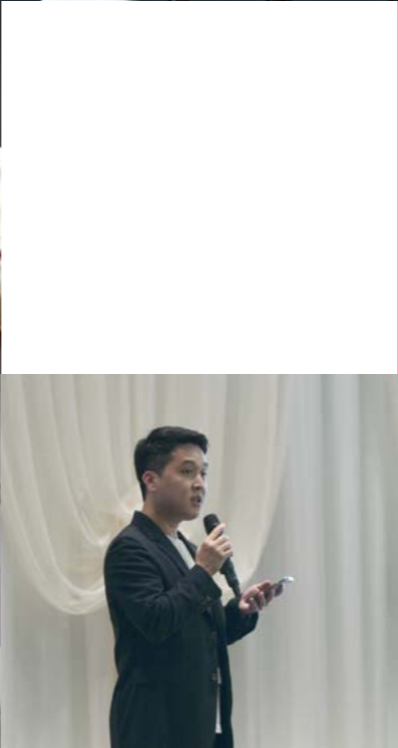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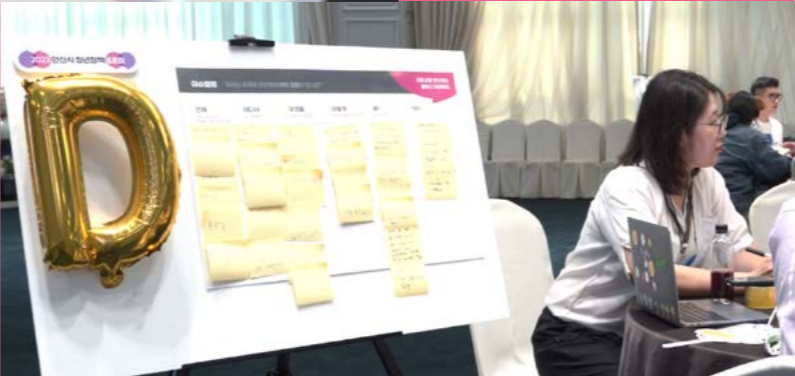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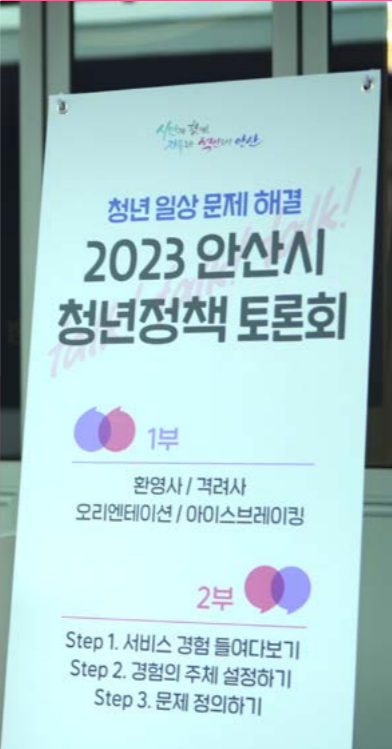
청년 여가/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해요.  
부동산 거래, 불안해요.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자전거/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  
산단 취업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 4. 결과 검토

- 4.1. 관련부서 검토의견
- 4.2. 전문가 참언

### 5. 제언

talk!



talk!



# 1. 행사 개요

2023년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는 안산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진짜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정책의 현 주소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8개 의제별로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과 의제 관련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행사는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다각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안산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제안할 예정입니다.

**시간** 2023년 9월 9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안산 상공회의소 그레이트홀

**주최** 안산시 청년정책관

**주관** (주)비저블엑스

**참여** 총 63명(퍼실리테이터 8명 / 정책전문가 14명 / 정책수요자 41명)

## 토론의제

청년 여가/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해요.
부동산 거래, 불안해요.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자전거/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
산단 취업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 2. 추진 과정

## 2.1. 의제 선정

안산시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지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은 안산시 관련 부서의 검토와 자문단을 통해 토론 의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모 개요**

공모기간 : 2023년 7월 25일 ~ 8월 15일

공모대상 : 안산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청년

공모자수 : 총 80명

공모내용 : 안산 공공 서비스에서의 불편 또는 개선사항 등 총 24개 문항

**공모결과 요약**

보다 의미있는 정책 토론을 위해 청년들의 공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관련있는 정책서비스의 유무, 사업내용 등을 사전 검토하여, 그 중 다수의 청년들이 공감하는 문제, 해결의 시급함이 요구되는 의견을 추려 청년 정책토론에 적합한 의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사는 곳과  
여가/문화시설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이사갈 곳이 없어요.

안산역, 중앙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인데  
2차선이 웬말인가요.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너무 노후하고  
콘텐츠가 부족해요.

공공임대주택은  
하자가 많아 좀 꺼려져요.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미비해요.

뉴스에서 험악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  
괜히 불안해져요.

타 지자체에 비해  
여가/문화생활 홍보가  
너무 안돼요.

청년 거주 지역은  
대부분 생활 인프라가  
멀리 있어요.

이주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커서 잘 이용하지  
않게 돼요.

길거리 여기저기  
자전거/PM을  
마구 세워놓아서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쌓을 기회가  
너무 적어졌어요.

'안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안전과는 거리가  
있나봐요.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에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요?

생활체육시설이  
9to6 운영하면,  
직장인은 꿈도 못 꾸죠..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장기 거주가  
어려워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기회가 필요해요.

안산에서  
우리 동네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잘 관리하면  
자전거 친화도시가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우울증을 앓는  
친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안산 내 직업계고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취업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다보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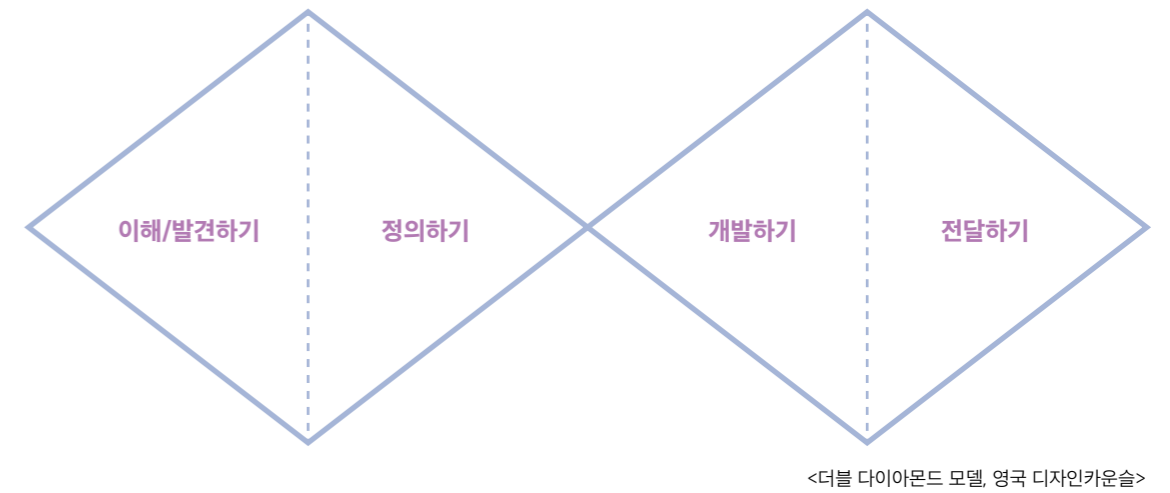
## 2. 2. 토론 참여자 그룹 편성

토론 참여자는 의제 공모자 중 청년정책토론회 참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였고, 이 외에 의제와 관련한 기관 또는 부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의제와 관련된 직/간접 경험 유무와 정책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토론회 현장에서 유의미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룹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의제	청년 여가 문화생활 기회가 부족해요	부동산 거래, 불안해요.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정책 수요자 (청년)	김*진	김*엘	김*훈	박*호
	서*현	김*리	박*훈	박*원
	오*은	김*늘	김*현	송*정
	윤*호	백*람	이*채	송*니
	최*숨	진*호	한*군	조*현
청년인턴	김*주	문*찬		
공무원/ 기타협력기관	강초원 (청년정책관)	고재준 (토지정보과)	은수연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	안승훈 (대중교통과)
	정희영 (여성가족과)	김행란 (토지정보과)		
의제	자전거나 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가는 것 같아요.	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	산단 취업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정책 수요자 (청년)	박*식	문*재	김*미	고*비
	박*미	이*휘	박*선	문*원
	박*범	정*진	박*진	박다*엘
	유*욱	채*기	안*진	윤*진
				전*미
청년인턴	정*현	길*진	윤*희	
공무원/ 기타협력기관	곽영석 (철도교통과)	권명화 (여성가족과)	김인희 (여성가족과)	김경진 (산업진흥과)
		이은주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김현아 (안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김은실
			송창식 (안산 환경재단)	

## 2. 3. 토론 진행을 위한 방법론

이번 청년정책토론회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정책수요자인 청년, 의제관련 담당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수요자의 경험을 살펴 보고, 숨은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나가도록 서비스디자인 전문가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했습니다.



**토론 의제 공모**  
안산 청년들의 정책 경험  
현안 파악 및 핵심이슈 탐색

**청년정책 토론회 진행**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담당부서 검토**  
정책 서비스 아이디어의  
현장적용 방안 모색

### 참여 퍼실리테이터 (서비스경험디자이너)



**김관희**  
청년 여가/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해요.



**강동선**  
자전거/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방장혁**  
부동산 거래, 불안해요.



**서지선**  
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정주연**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박재민**  
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



**박은혜**  
대중 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이정연**  
산단 취업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 2. 4. 행사 일정

구분	순서	담당
1부	개회	다함께
	국민의례	다함께
	환영사	청년정책관 이혜숙 과장
	오리엔테이션	(주)비저블엑스
쉬는 시간		
2부	서비스 경험 이슈 맵핑	토론 참여자
	경험 주체 설정	토론 참여자
	핵심 문제 정의	토론 참여자
쉬는 시간		
3부	정책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토론 참여자
	그룹별 아이디어 공유	퍼실리테이터
	버스킹 공연	
	온라인 패널 발대식	청년정책관
	격려사	이민근 안산시장
	폐회	다함께



### 3. 의제별 토론 내용

토론 과정은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했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수요자 경험을 살펴보고, 핵심 수요자를 구체화하고, 기존 경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활용했으며, 그룹마다 배치된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단계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STEP 1. 이슈맵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타
<small>(문제 상황/시간이 발생하는 시점 및 경우 상황)</small>	<small>(장소/대상 등)</small>	<small>(이유, 성격, 결과 등)</small>	<small>(대상/방법/행동, 시수/장기 등)</small>	<small>(이유, 동기 등)</small>	

이슈맵은 청년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 발굴을 위해 일상과 밀접한 주제선정 이후 직접 또는 주변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슈를 정리하도록 돕는 도구(tool)입니다.

각 이슈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기초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중심으로 이슈 속 숨은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슈 맵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슈맵은 육하원칙의 각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청년들에게 불안/불편을 만드는지 경험의 전 과정을 세분화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도록 고안하였습니다.

#### STEP 2. 퍼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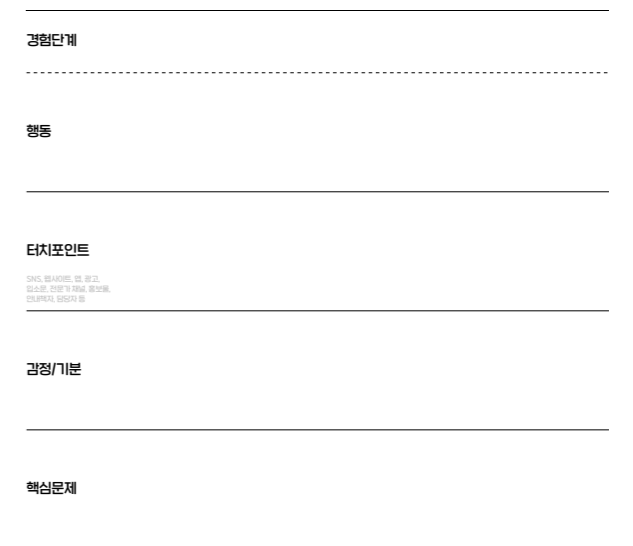


1차로 정리된 이슈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 누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짧은 워크샵 시간동안 효과적인 방향성 도출을 위해 도출된 '이슈 맵핑' 자료를 토대로 '누구를 중심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지 기본 방향성'을 가진 퍼소나를 설정하였습니다.

퍼소나는 일종의 정책타겟이 되는 가상 인물로 거주 또는 활동 지역 / 거주기간 / 직업 / 취미 등 일상 습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토론회 참여자들이 각 요소점 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 STEP 3. 고객여정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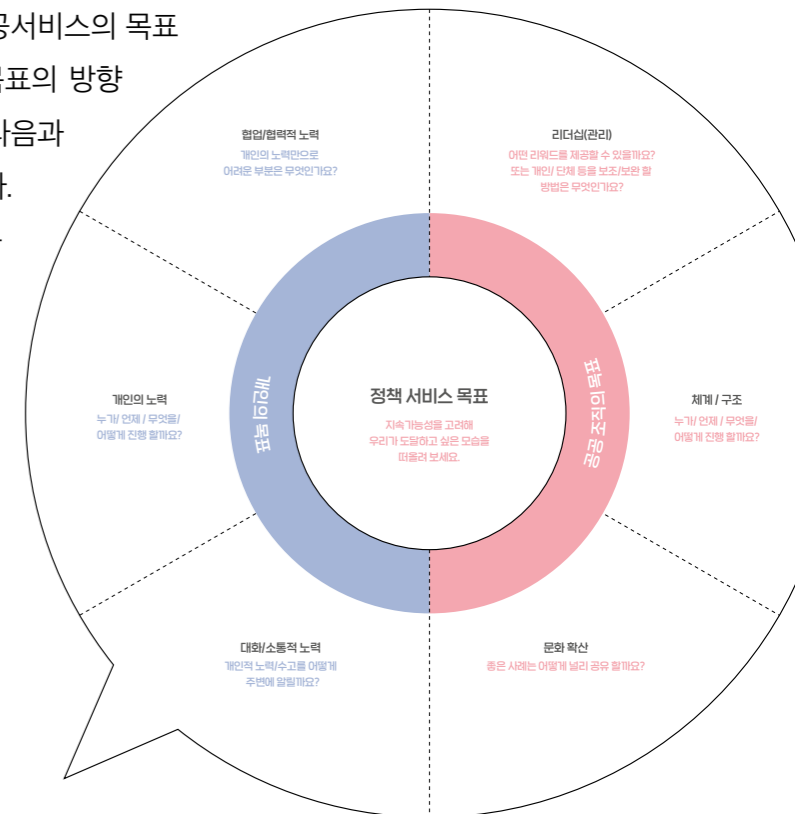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을 그려보기 위해 문제정의 도구인 '고객여정지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고객여정지도를 통해 경험의 단계별로 핵심 문제상황에 따른 경험 / 감정 / 행동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경험, 생각,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터치포인트 : 고객접점)가 활용되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STEP 4. 청년정책 나침반

'일본 2023 디자인으로 바꾸는 행정과 미래 서비스디자인' 툴킷 중 '정책검토 도구'에 근거해, 앞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나침반'이라는 아이디어 제안 도구를 고안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청년 개인의 목표, 공공서비스의 목표로 이원화되어 정책 제안을 위한 세부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축으로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우선, 개인목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업관점, 개인적인 노력관점 그리고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의 목표는 관리 측면, 서비스의 체계구조측면, 문화 확산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청년 여가/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해요.

👤 **퍼스나 Persona 핵심 키워드**  
#20대 #직장인 #뚜벅이 #주말여가 #인스타

안산 청년들은 주로 취미 등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을때 새로운 정보를 찾아 안산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정보를 발견 하더라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주말에 친구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려 할 때	전시관, 미술관 등	전시 정보 등 탐색, 안산 인근으로 찾아보다 적당한 정보가 없으면 서울행	서울에서 전시 관람 후 귀가	안산 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질적 평가도가 낮은 편	타 지역에 사는 친구를 안산으로 초대하기엔 콘텐츠가 빈약하다고 느낌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보 탐색	온라인 (SNS, 어플 등)	프로그램 내용, 장소, 시간, 비용 등 신뢰도 높은 정보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물 보고 온라인 검색	오프라인 정보의 다양성 부족	출퇴근 길이 정해져 있어 보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음
운동 등 활동적인 시간을 보낼 때	거주지 인근 체육 시설 또는 공원 등	클라이밍, 헬스 등	시 운영 체육관에서 클라이밍 수업 수강	비용이 저렴하고 가까움	체육관 미방문 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 없음
교양을 위해 책을 읽으려 할 때	도서관 내 자료실 또는 열람실(책방)	사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 둔 책	조용한 열람실에서 개인 독서, 또는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 소모임 참여	가끔 읽을 책을 대출해 집이나 근처 카페에서 읽기도 함	도서관 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

# 청년 여가/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해요.

실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어떤 정보 탐색과정에 입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중 인플루언서 등의 게시물을 통해 그들의 안목을 믿고 정보를 선별해 여가 장소/프로그램을 정하는 양상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산시 관련 게시물을 정보가 빈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간혹 콘텐츠에 따라 '정보'의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믿을만한 유익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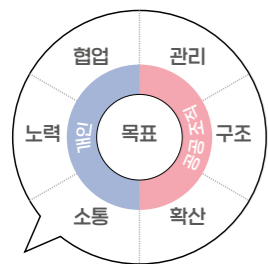


# 청년 여가/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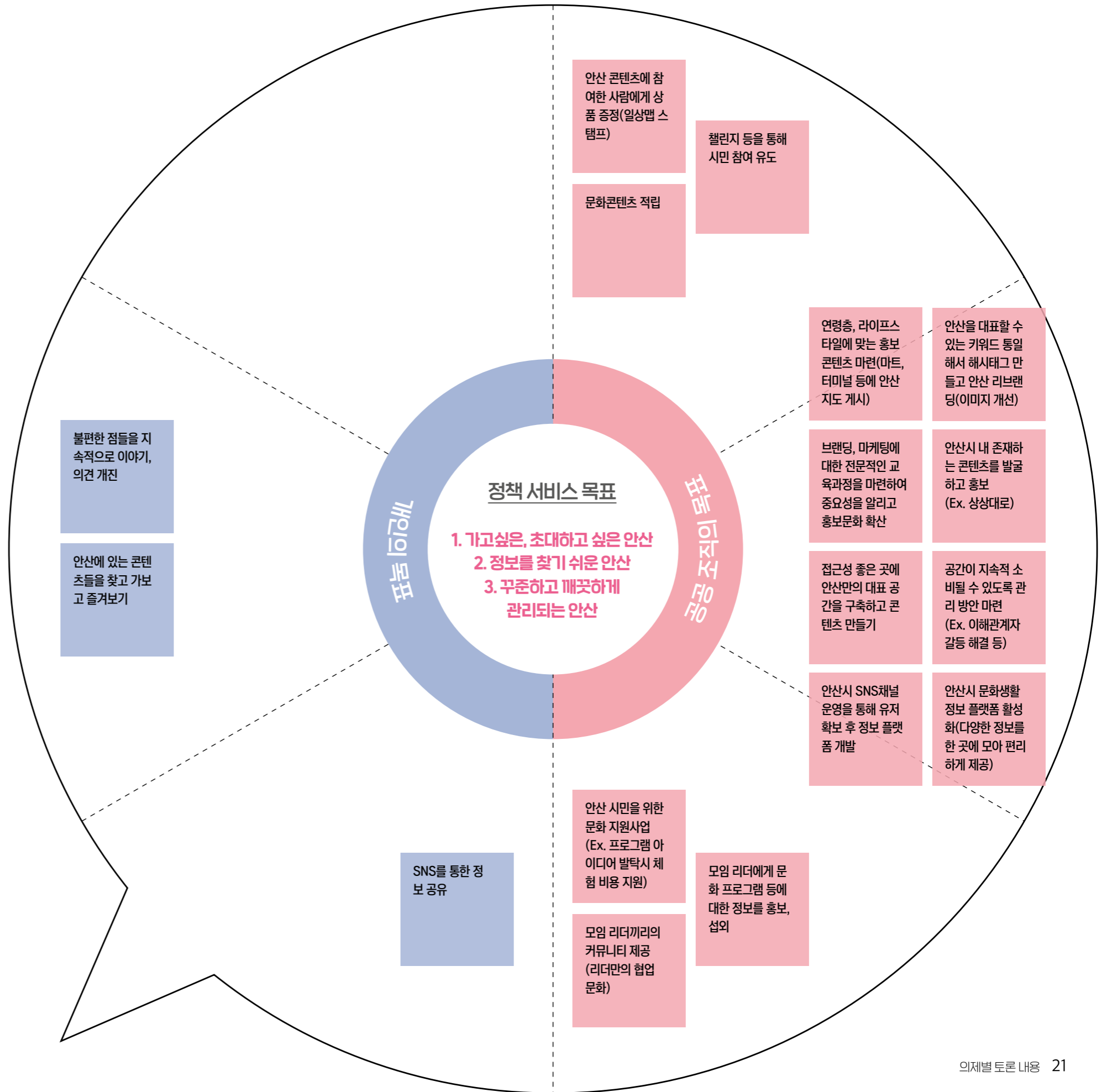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청년들은 안산시에서 즐길 콘텐츠에 대해 기본 시설 관리와 더불어 좀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정보홍보/관리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설사용 측면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유연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홍보 측면에서는 안산만의 대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특정 정보플랫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게 꾸준한 SNS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단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언어소통/홍보방식을 사용할 것, 행사에 참여는 물론 아이디어(후기)등 적극 공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도 안산 여가 전문 인플루언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요? 청년들은 앞으로 즐길거리 여가문화가 가득한 안산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나침반을 작성 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부동산 거래, 불안해요.

🔍 **퍼소나 Persona 핵심 키워드**

#이사 #퇴근후라이프 #주차공간필수

안산청년들에게 큰 불안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청년 개인 상황에 꼭 맞는 매물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높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개사들을 통하면 허위매물이나 말 바꾸기, 건전하지 못한 매물거래 강요 등은 불안과 피로감만 키울 뿐, 오히려 중요한 등기부등본 확인 시 소홀해지거나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복잡성만 키우는 중개 방식으로 청년들의 고민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올해 6월 부모님의 귀농으로 급하게 전세집을 구할 때	기금e든든 사이트 안산에서 다방,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	주거주택 정보를 찾으려고 대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을 함	나에게 맞는 정보 인지 알수 없고 확신이 없었음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으려 검색을 하였으나 다양한 정보만 복잡하게 있었음
3년 전 주택 청약을 위해 전세로 전환	와동 주변(공인중개사)	막상 중개사무소에 갔을때는 요청했던 매물이 없고 전혀 다른 매물을 소개받음	용자가 매우 컸는데도 전세 계약을 강요함	고가전세계약 후 청약 욕심이 생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 보조인이 왔음
2년마다(계약/재계약 시점) 전세 연장을 희망할 때	집주인과 통화시, 공인중개사와 소통시	계약 종료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할 두려움 적당한 집을 구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당한 것 일까 봐 두려움	센척... 인터넷 검색하고 막연히 잘 지나가길 기다림	자문, 조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친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중기청 대출 이용하고 은행에서 사기인 집을 걸러줄 거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걸 나중에 알게 됨
20년 전 안산시	안산 본오동, 사동	집 구할 때 필요한 정보(등본 보는 방법,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전반적인 사항)	전세보증금(1,300만원) 날림	교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정보를 찾음 보호조치를 못하고 그냥 퇴거함	부동산 정보, 등기부 금액 부족 대항력을 잃음

# 부동산 거래, 불안해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청년들의 고충은 주로 매물을 알아보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 주로 막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출처, 부동산의 중개 태도로서 기인하는 기대와 의심, 예산 등 심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고민들이었습니다. 계약 전·후 시점에는 불안이 최고조가 되는데 각종 필수인지도 잘 모르는 서류확인 절차,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는 등기 관련 서류 절차, 잔금거래 완료 이후 반드시 점검해야 서류/절차 등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공공서비스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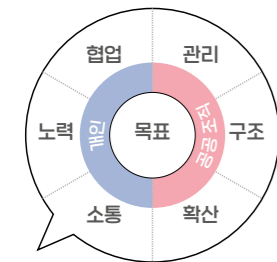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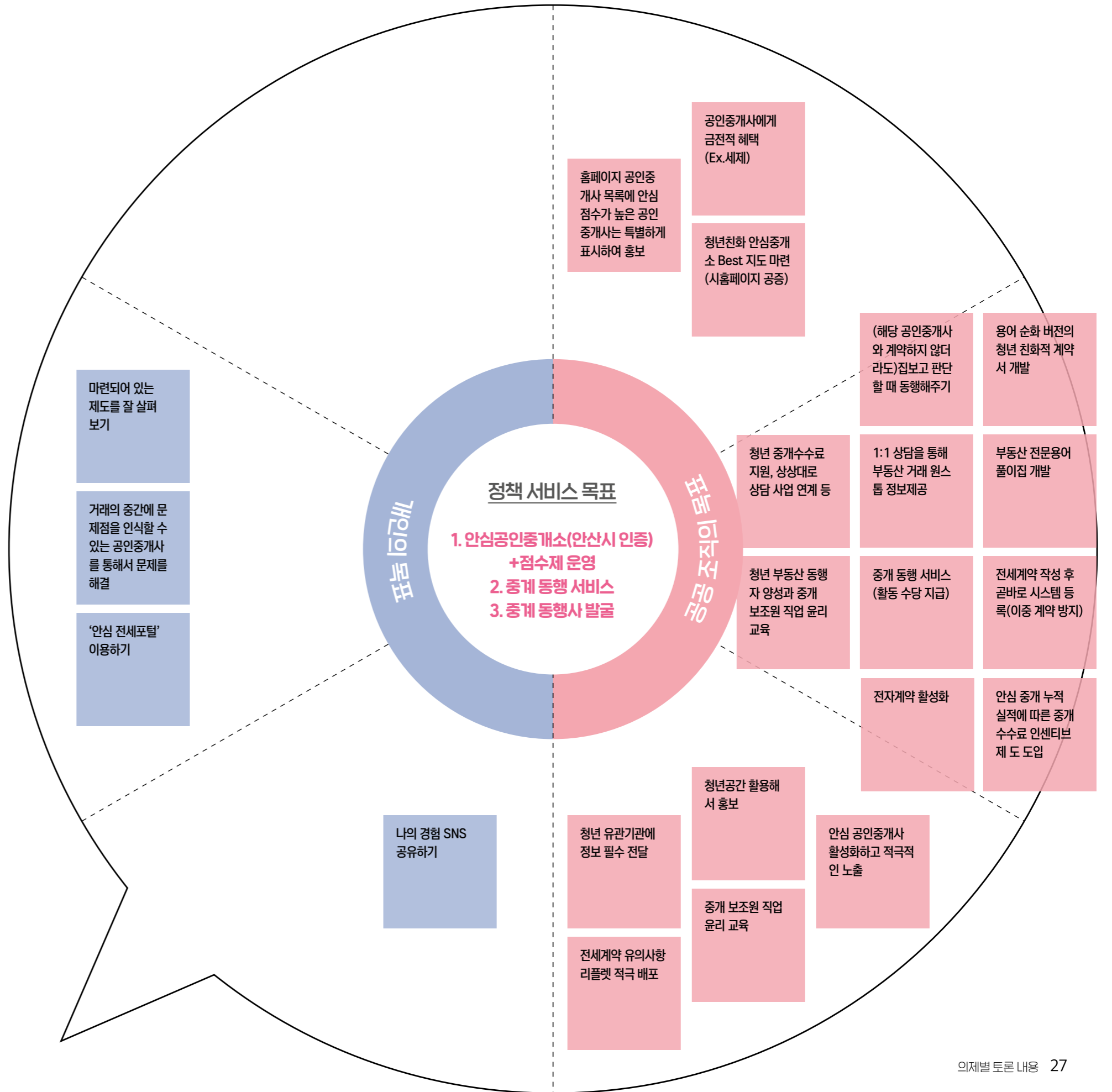
# 부동산 거래는 좀 불안해요.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부동산중개소에 신뢰도 제고 위한 방법과 청년눈높이에 맞추어 거래의 모든것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를 바란다는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동산업체 선정부터 거래까지 전 과정을 거쳐 쉬운 용어풀이,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 장치(전문가 상담, 동행등), 전자계약 활성화와 안심 중개소에 대한 인센티브(공공 서비스포털에 노출, 홍보 등)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많았으며 중개사에 대한 윤리교육 및 안전 거래 관리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 **퍼소나 Persona 핵심 키워드**  
 #한국생활7년차 #조선족 #친구원함

한 이주청년은 본인이나 주변에서도 한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찾기위해 아직도 자국의 검색플랫폼을 이용한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 이슈였습니다.

## [이주 청년]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여유시간 (주말, 명절, 휴가 등 쉬는 날)	집	한국 사람(친구)이 많이 가는 장소와 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병원 정보	정보 제공 플랫폼 (네이버, 자국 플랫폼 등)을 통한 검색 지인(선생님, 한국에 더 오래 거주한 같은 나라 친구)에게 문의	한국 또는 한국친구에 대해 잘 알고 싶은 호기심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채널 궁금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축구장	한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갔으나, 또래를 만날 수 없었음	어디를 가야 한국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한국 친구를 사귀 수 있는 접점 (방법/장소)을 알고 싶음	
한국어 교육을 수강할 때	대학교 언어교육관	교육 이후에도 한국 각 지방의 사투리가 나오면 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낌		과거의 이주 어른과 달리 현재 이주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족학교를 다니고 중국어가 더 편함	과거 이주 어른은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편임
평상시	어디서나	한국 친구들에게 소통의 벽을 느낌		안산 사람들이 중국사람(이주 청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	

#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 퍼소나 Persona 핵심 키워드  
#해외진출 #언어준비 #친구원함

이주청년들의 일상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어 소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흔합니다. 평소 번역기를 동원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문화 속 규칙, 규율을 이해하지 못해 크고 작은 헤프닝을 치뤄내느라 서로에게 더 많은 적응시간과 시행착오 경험이 필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비이주 청년]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초 이주 청년 (고등학교 같은반 친구)의 병결</li> <li>선생님이 무단결석한 이주 청년을 친구들 앞에서 크게 혼냄</li> <li>학교 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소통 오류로 서로가 오해하는 일이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 이주 청년과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영어로 대화함</li> <li>소통의 어려움 존재. 중간 통역 없이는 제대로 소통하기 어렵다고 느낌</li> <li>이주 청년은 출신 나라에서는 아프면 연락없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했음</li> <li>한국의 규칙을 알 기회가 부족하고 이런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음</li> <li>이주 청년을 상대로 음박, 강요, 소리 지름이 없는 상냥한 소통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li> <li>핸드폰 어플 (Hello Talk)</li> <li>'외국인 친구 찾기' 매칭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과 소통하며 언어 말하기 실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싶은 목적</li> <li>어플을 통해 만난 외국인 친구가 알고보니 종교 가입 목적으로 접근했던 경우도 있었음</li> <li>이해가 어려운 어플의 과금제도 (일정 횟수 이상 만나거나 장소, 사용언어에 따라 과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상시</li> <li>안산시에서 이주청년과 공존하고 있다는 체감을 못함</li> <li>생활반경에 이주청년이 없음</li> <li>이주청년과 비이주청년 간 생활구역이 나뉘어 있음</li> <li>또래의 친구(이주청년)를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가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음</li> <li>외국인 친구와 취미생활을 공유해 보고 싶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턴쉽(20시간) 참여</li> <li>글로벌 청소년 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 사용 언어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어려워 번역기 사용했음</li> <li>시간이 짧는데 이주청년에게 설명에 소비한 시간이 많아서 아쉬움</li> </ul>				



#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소통의 어려움을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안산청년이나 이주청년들의 문제가 좀 더 쉽게 정리됩니다. 언어로 인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정보나 정보 검색 도구의 신뢰도 문제, 공유 공간/프로그램의 문제가 주된 이슈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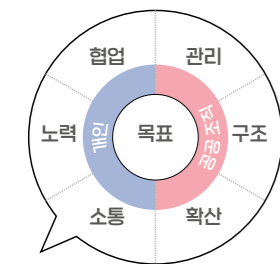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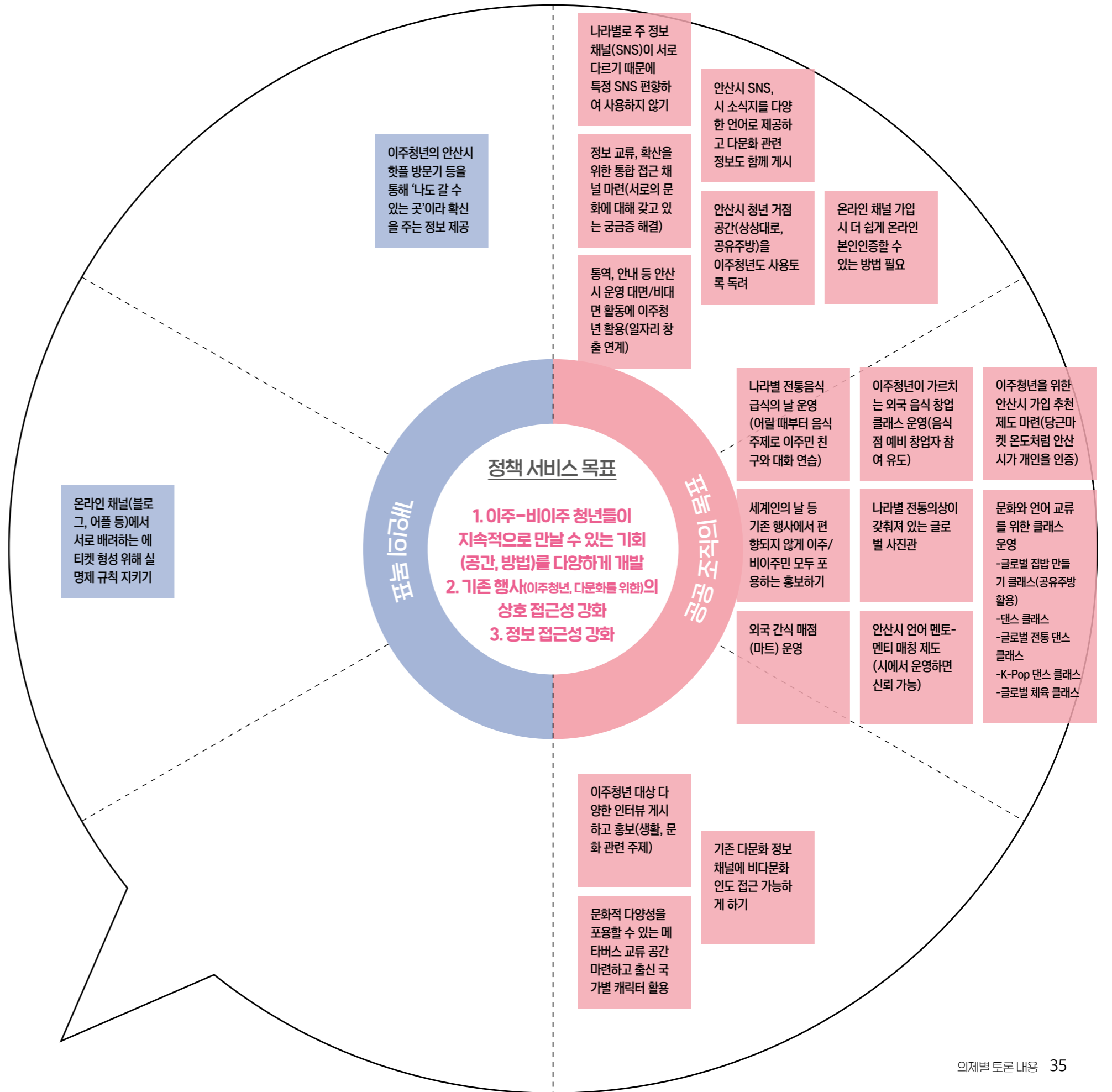
#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이주 청년들과 안산청년들의 접점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상시 다양한 문화/정보 경험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정리 되었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 **퍼스나 Persona 핵심 키워드**

#안산토박이 #대중교통 #출퇴근 #이사갈까

안산시 거주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대중교통'이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차 시간, 노선의 비효율성 문제로 아주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도 이용할 수 있지만 운전 미숙, 비용부담 등 모두에게 편안한 선택은 아니어서 청년들의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출퇴근	안산 내 집과 직장	버스	기다림	버스 배차가 너무 길고 노선이 한정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음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은 가격 매리트 낮음
남들보다 이른 새벽 출근시간 (5시 경)	집	버스를 타기 위해	사전에 시간표 확인하여 집에서 출발	버스 시간을 놓치면 출근 시간을 못 맞추거나 나의 준비 시간을 계산해야함	
지인의 결혼식이 있는 주말	집에서(초지 서해 아파트)	지하철	길 찾기 및 이용요금 확인	주말이라 버스 노선 시간이 더 적음	

#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오랜 시간을 안산에서 살면서 해소되지 않는 불편 중 하나는 버스 이용입니다. 지하철을 타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긴 배차시간과 출퇴근길에 몰리는 사람들 덕에 코 앞에서 버스를 놓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달에 스무번은 반복해야 할 출퇴근 시간 버스만이라도 대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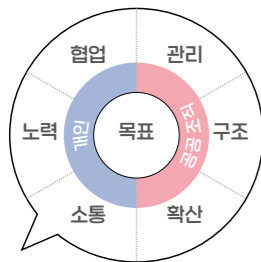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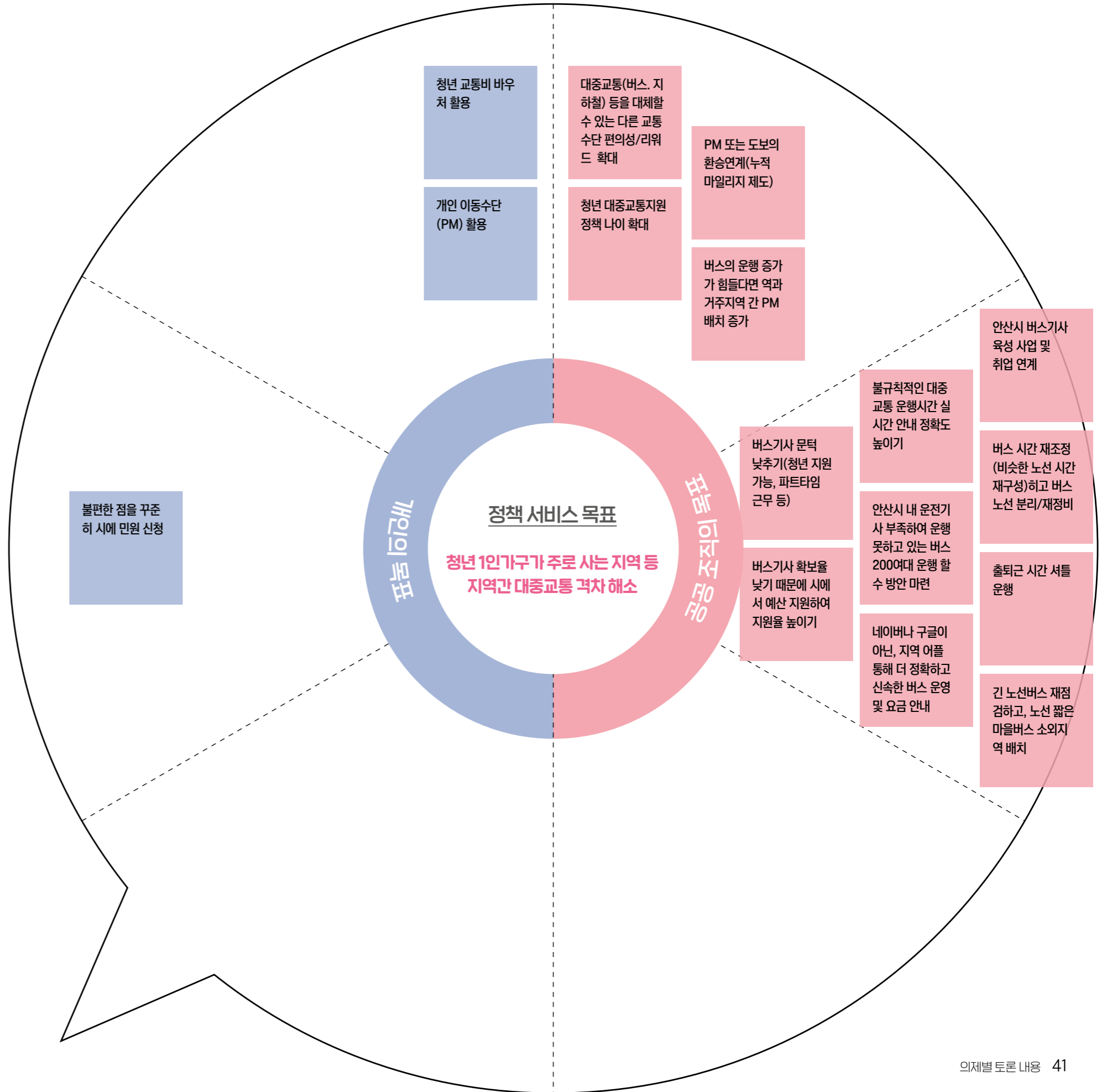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청년들은 특히 안산시내 지역간 대중교통의 편의성 격차라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좀 더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년일자리 연계해 버스기사 확충 등으로 버스 노선을 늘리거나, 대중교통안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1인용 모빌리티의 교육 강화로 실제 탈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역간의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1인 교통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자전거/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 **퍼스나 Persona 핵심 키워드**  
 #안산은내고향 #대학생 #나만아는골목 #여행

PM 즉 개인이동형장치 때문에 사고경험이 있었던 청년 본인 또는 주변지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 안전에 대해 불안을 겪는 청년들의 피로한 일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회사, 학교 인근 차도	역주행	경찰 제보	보행자에 안전 확보	
산책중	화정천, 안산천	수풀 주차	사진 촬영 후 공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항시	거주밀집지역	안전이동의식도 미흡, 블로킹주차	시민 PM 이용 성숙도 향상 리워드 보상제(지정존 이동시 쿠폰제 등)	안전 문화 확립 및 확산	초중등 기관에 PM 이동 문화 교육 프로그램 시행 필요

# 자전거/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청년들은 특히 제대로 이용하는 법을 배운적 없어 위험 주행, 비매너 주차 등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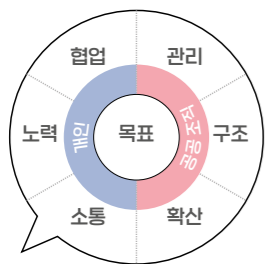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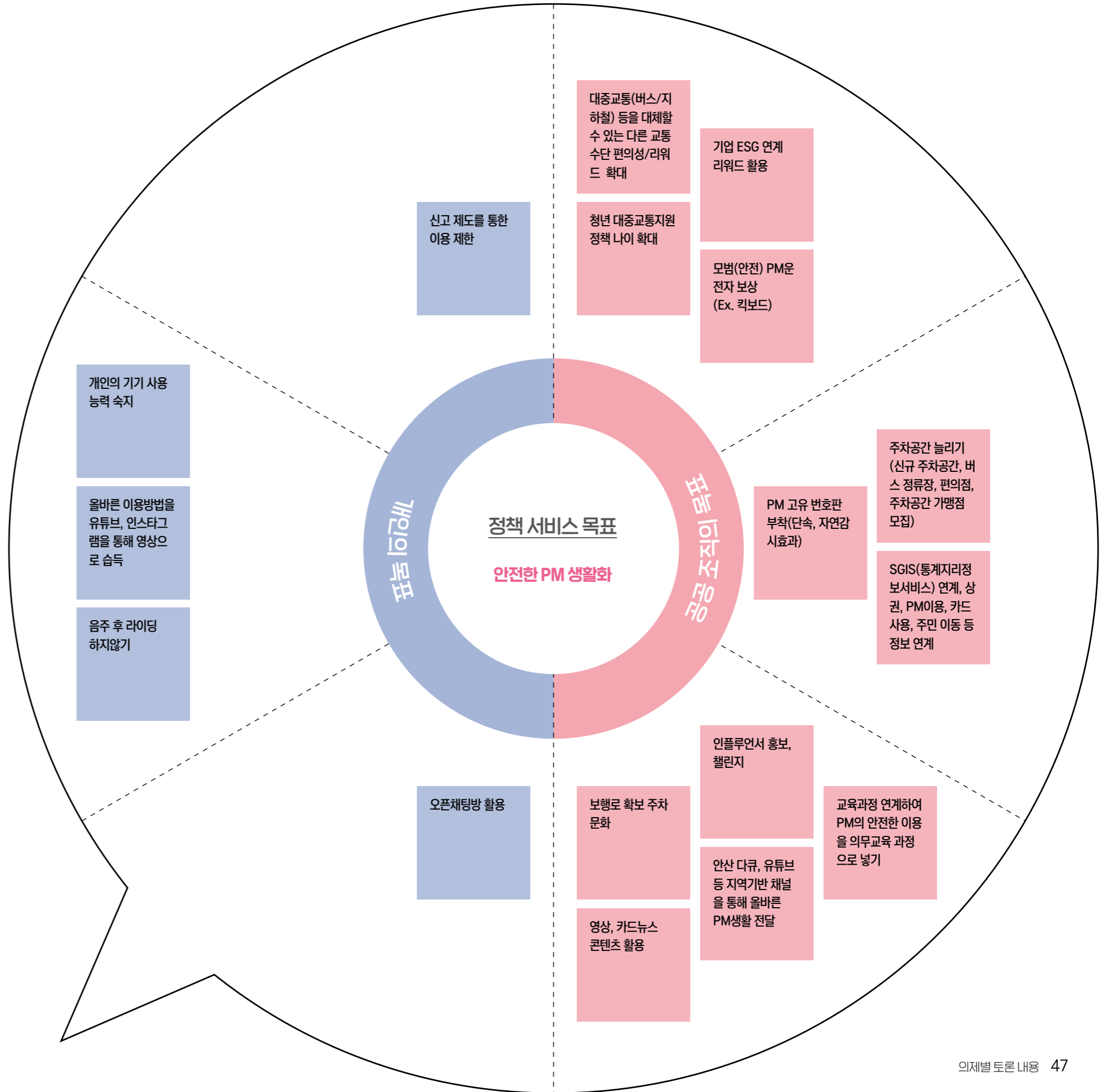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 자전거/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안전한 개인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올바르고 바람직한 PM생활을 위한 가이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인플루언서등을 통해 안전이 PM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인식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안전한 주행자들에게는 기업들과 연계된 프로그램, 보상 체계를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 **퍼스나 Persona 핵심 키워드**  
#울빠미 #게임중독 #취업준비 #수면장애

팬데믹 이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어색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청년들은 게임, 영상 등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에 매몰되어 사회적 활동이 더 위축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협소해지고 고립되어 갑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고 나아가기 위한 신체적-관계적-정서적 일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1년 전	집, 사회	취업 도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됨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짐	개인질한 때문	아토피환자였고 1년전에 중증으로 되었다. 시작은 아토피였지만, 아토피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가고, 피부때문에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하지 싶었다. 고립의 근본적인 것은 생각이기에 우울증 치료 등을 하고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울증 지원 정책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
19살 때	집	물리적, 정서적 고립	사회적 교류X	경제적, 가정적 문제	우울증이 8~10년 정도 있었다. 고립의 기간이 성인 되기 까지 길었기 때문에 방황했던 시간이 있다.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며 청년들의 고립문제를 통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를 고립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청년들도 좋지만 고립된 청년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3개월 전	커피숍	복지관에서 같이 자란 친구로부터 외롭다는 고민을 들음	친구가 나에게 관심과 칭찬을 바람	친구가 활동성 고립 상태임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자라서 뿌듯한데 외롭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람 살결이나 음성을 들으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온라인 블로그로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 청년들은 답한 고립보다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는 활동성 고립이 더 많은 것 같다.
퇴근 후 혼자만의 시간	고요한 나의 집	청년의 고독사	왜 도움을 주지 못하는가	청년정책은 3000개씩 쏟아지는데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청년의 고독사 다큐가 20년 부터 3000개씩 쏟아져 나왔는데 예산을 쏟아 부어도 왜 저들을 구하지 못할까? 즉각적으로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문 또는 대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시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사업은 연봉 제한 등의 이유로 지원이 까다롭다.

# 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안산시 청년들도 청년고립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회진출 좌절, 소셜미디어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코로나 등 사회적 위기, 재난 상황 등을 겪으며 찾아온 무기력감, 우울감 등으로 인해 점점 스스로 고립, 은둔형 외톨리가 되어가는 그들의 고민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알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증폭시키는 등의 문제로 주변과 더욱 사회적 거리,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치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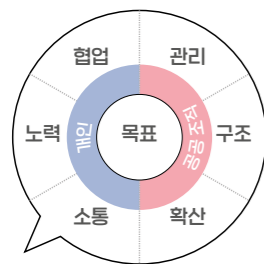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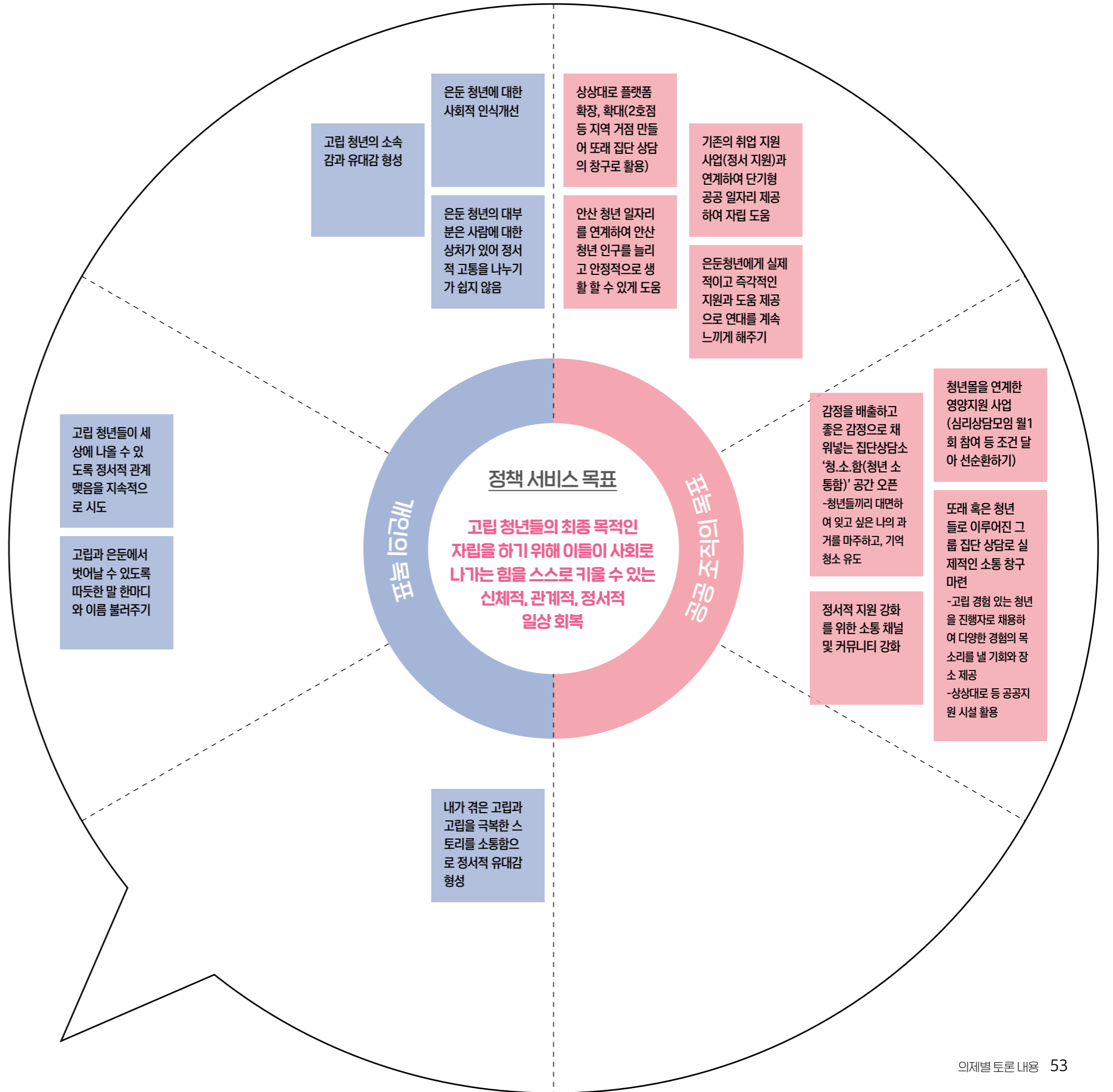
# 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고립/은둔형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매스컴에서 소개된 심리 전문가들이 뽑는 솔루션과 같이 우선순위로 일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들의 취업, 심리상담, 생활지원 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시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속가능한 형태의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돌봄과 관련한 세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의 긍정적 배출과 공유를 돕는 프로그램, 공간의 확보나 커뮤니티 강화, 일상 생활 속, 거주지 주변 청년물 연계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정서적 유대에 집중해 매일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생활집중케어가 필요한 것으로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

🔍 **퍼소나 Persona 핵심 키워드**

#늦은귀가시간 #원룸촌 #전화하는척

안산 청년들은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 접한 범죄들이 더 불안감을 자극하는 탓도 있겠지만 안전하지 않은 골목 환경, 노숙인 문제 등 불안 키우는 거주 환경과 범죄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매우 큰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문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뉴스들을 접한 후	역, 사무실, 거리, 화장실, 버스 등 등 곳곳	두렵고 뒤돌아보게 됨	움츠리게 되고 혼자 있을 때 공간에 문을 잠그고 있음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 지 알 수 없음	
퇴근 10분전 밤 9시 50분	와동 청년센터	노숙 청년과의 갈등	퇴실을 요청했으나 거부	본인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서 방어 기제?	
최근	동네 산책로	주변 사람들	눈만 마주쳐도 무서움	사회 사건사고가 많음	
20대 때	집 앞 골목	범죄 위협	학교에서 배운대로 대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	

## 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

특히 청년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거나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악들을면서 불안 줄이기, 수상한 승객 피해 멀리 가기, 부모님께 전화하기 등 매우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정책이나 서비스 고안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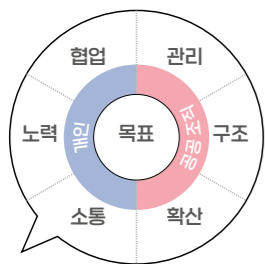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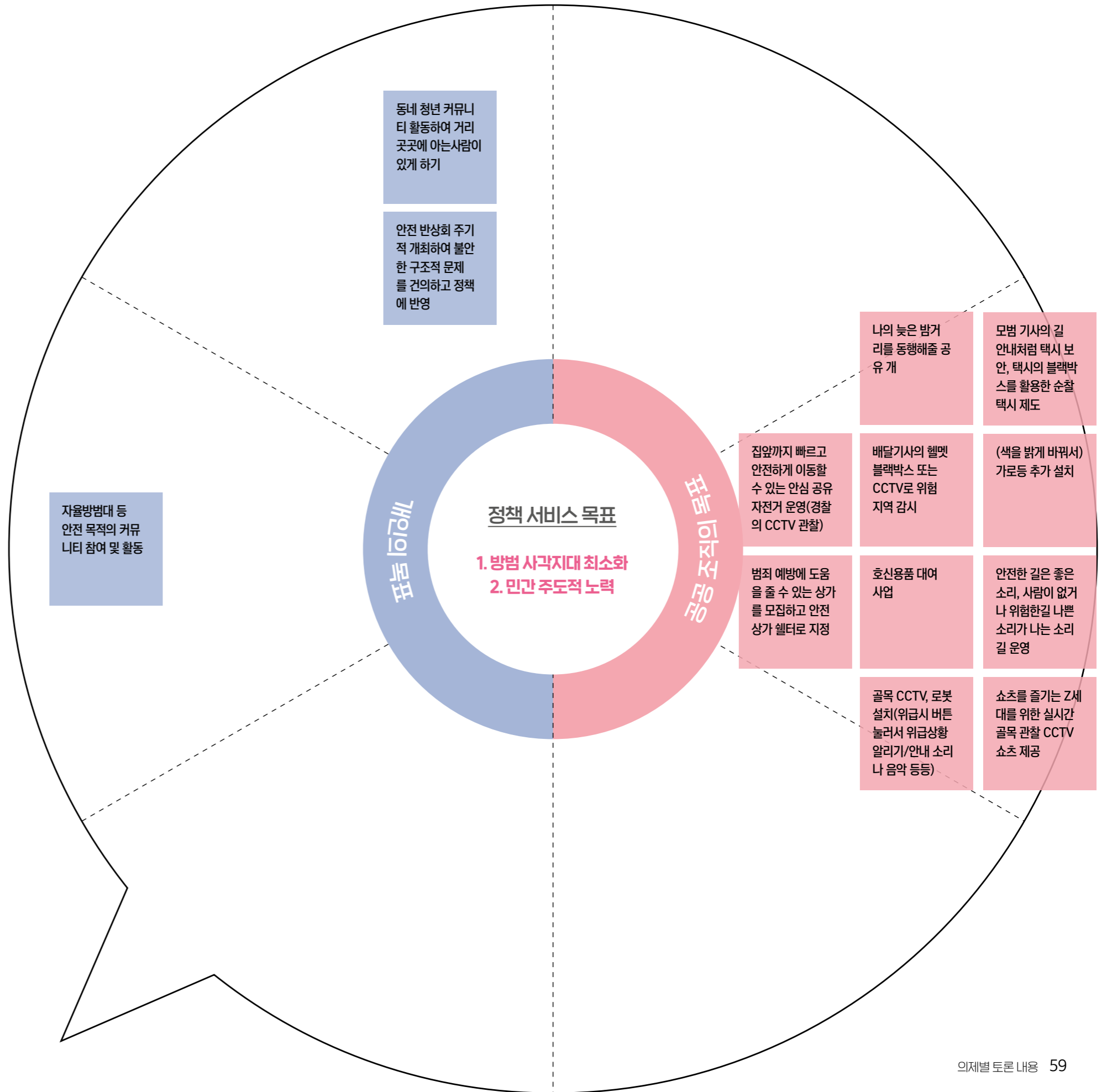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 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청년 그룹은 방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 민간 주도적으로 안전/안심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개인적 차원/공공 서비스 차원을 고려해 안심자전거 / 안심동행 / 배달기사님을 활용한 공공안심시선(cctv)확보, 실시간 골목 쇼츠 같은 방법용 영상 콘텐츠/가시성, 명시성 확보 가능한 밝은 색상으로 가로등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산단 취업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 **퍼소나 Persona 핵심 키워드**

#특성화고졸업 #워라벨 #정규직 #복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지만 취업을 고민하는 안산청년들에게 산단은 의외로 환영받지 못하는 취업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취업정보도 매우 부족하고, 근로 여건 환경도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생산직의 위험성을 안고 취업을 해도 비전이 없다는 주변의 시선, 편견과 싸워야 하며, 회사에서도 '부품'으로 사용되다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매우 불안합니다.

## 경험이슈 맵 Issue Map

언제 <small>(문제 상황/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및 전후 상황)</small>	어디서 <small>(장소/채널 등)</small>	무엇을 <small>(정보, 선택, 결정 등)</small>	어떻게 <small>(대처방법, 행동, 사후평가 등)</small>	왜? <small>(이유, 동기 등)</small>	기타
취업준비생	근로조건 확인	취업에 대한 고민		생산직 위험성이 존재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휴식시간 없다는 이야기를 들음	주변에서 산단 취업은 고생길이라고 함 출퇴근이 쉽지 않고 2교대, 3교대 근무이며 워라벨 낮음 공단 알바 경험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다고 느낌
시화 공단에서 지게차 계약직 일할지 고민할 때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을 고민함		지게차 사건/사고가 많음	주변에서 "할 수 있으면 해봐. 하지만 지게차는 하지마."라고 말림 2교대, 3교대로 육체적으로 힘들며 나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안됨
안산시 청년		산업 단지 취업을 고민함		임금이 적고 공단 근처 오피스텔도 없음	비전이 없다고 생각돼서 굳이 내가 여기에서 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듦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할듯 교통이 불편하고 헬스장 등의 편의 시설은 중앙동에 밀집해 있음
동생(기술직)	일자리센터를 통한 공단취직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족스러운 삶 유지		30인 이상 기업은 자부심 느낌	

# 산단 취업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이런 청년들의 경험을 바꾸려면 청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할 것 이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서비스로 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작업환경부터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산단에 몸담은 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버텨낼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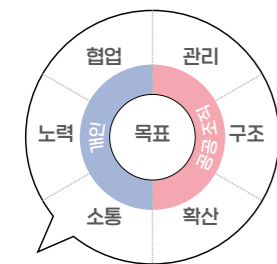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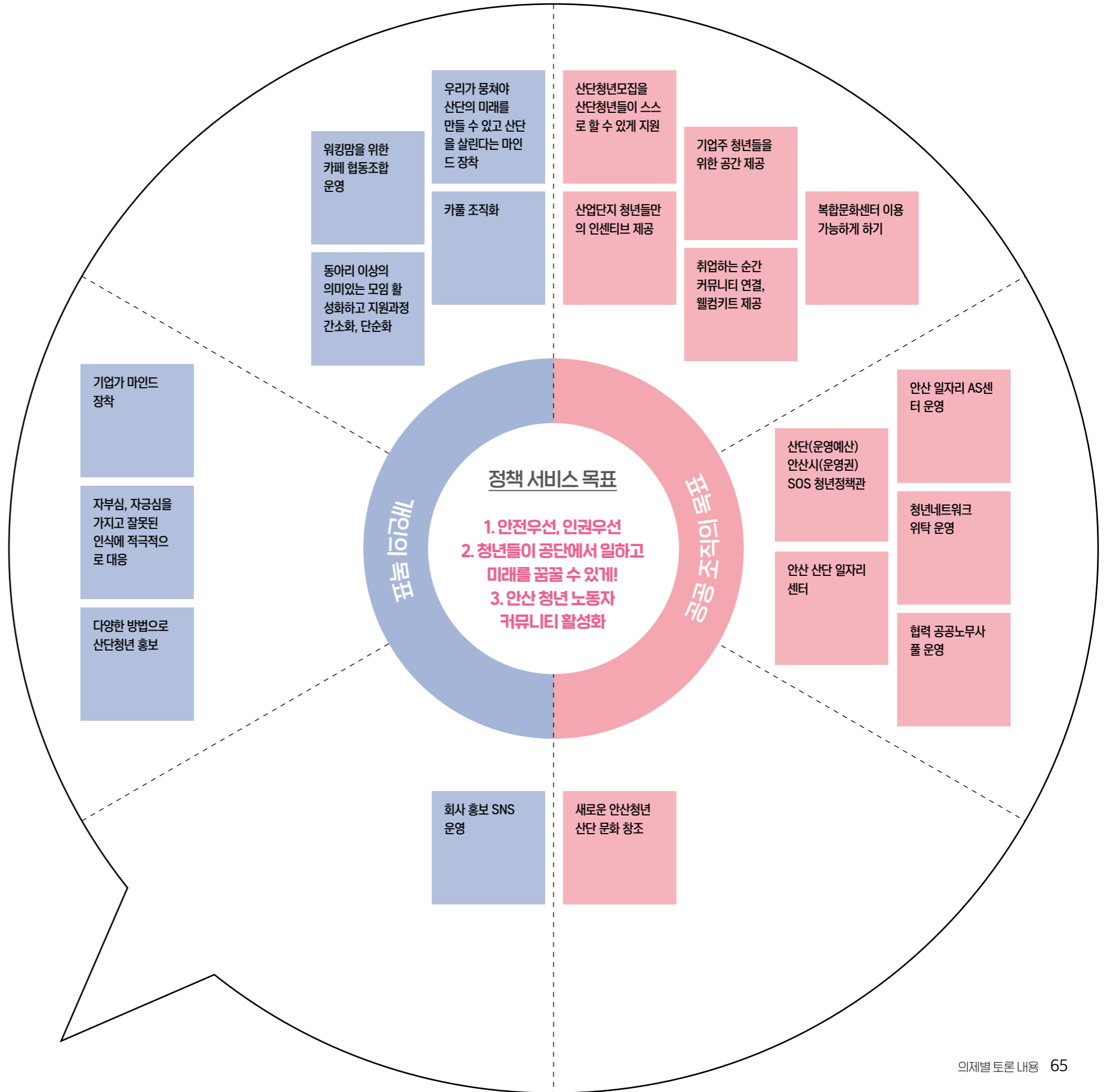
# 산단 취업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죠.

## 청년정책 나침반 Compass for Youth Policy

산단 취업환경을 개선할 정책 서비스의 목표는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커뮤니티의 꿈을 만들어 보자는데 주요 아이디어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 졌습니다. 새로운 산단, 그들만의 안전/안심/비전 문화 창조를 위해 일자리 센터/AS가 함께 산단 취업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고 청년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직접 취업부터 승진까지 일자리 전과정에서 도움(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혼 기혼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까지 세분화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마련해 산단의 새로운 분위기를 이끌자는 아이디어가 도출 되었습니다.



청년정책 나침반은 크게 개인과 공공조직의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측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협업, 대화와 소통 등 커뮤니티 영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더불어 공공 조직 측면은 서비스 관리(지속), 서비스 체계 및 구조, 문화 확산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 4. 결과 검토

### 4. 1. 관련부서 검토의견

청년 여가/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해요.	문화예술과
<p><b>추진 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산문화재단을 통해 공모사업(문화예술진흥기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및 예술인기회소득 사업 추진중으로, 청년층 대상 공모사업 추진 및 향후 확대 검토</li> <li>청년문화지원사업&lt;청년예술프로젝트 동고동락&gt;</li> <li>공모 통한 안산 소재 청년예술인 및 단체 창작지원, 청년예술제 주간 운영</li> <li>청년서포터즈(안문재PD) 운영</li> <li>청년층 문화예술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li> </ul> <p><b>향후 계획</b></p> <p>청년만을 관람객으로 한정된 공연보다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안산문화재단 청년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홍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 (안산문화재단 협업 추진)</p>	

부동산 거래, 불안해요.	토지정보과
<p><b>추진 중</b></p> <p><b>시민안심 내집마련 상담사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부동산 맞춤 상담서비스 제공</li> <li>사업기간 : 2022. 5. ~ 지속운영</li> <li>사업비 : 10,000천원</li> <li>기타 : 총 30개소(상록구 14개소, 단원구 16개소)</li> </ul> <p><b>향후 계획</b></p> <p><b>2023년 추진사업(1단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확대 검토</li> <li>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캠페인 및 리플렛 배포 통한 홍보</li> <li>안산시 생활정보지도에 내집마련상담사 위치정보 등록</li> </ul> <p><b>2024년 추진사업(2단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연수시 직업윤리 및 고용 증개보조원 관리 교육 강화</li> </ul>	

이주 청년들과 교류 기회가 부족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
<p><b>추진 중</b></p> <p><b>글로벌사진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 연중</li> <li>사업비 : 18,724천원(2023 예산)</li> <li>주요내용</li> <li>세계문화체험관 내 다문화의상, 악기 등 구비</li> <li>의상 및 다문화 음식 등 다양한 체험교실 운영</li> </ul> <p><b>정보채널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 연중</li> <li>주요내용 : 외국인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를 구글번역기 연동하여 109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인증, 회원가입 절차 등 필요없음</li> </ul>	

대중교통만으로 출퇴근 어려워요.	철도교통과
<p><b>추진 중</b></p> <p><b>시내버스 노선 재정비 사업 (202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 2024. ~</li> <li>사업비 : 500,000,000원</li> <li>주요내용 :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추진 및 노선 재정비 추진</li> <li>기타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연계</li> </ul> <p><b>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승제도, 청년 대중교통지원 등은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음</li> <li>시내버스의 실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으로 적극적 개입이 어려움</li> <li>PM 증차는 지자체(대중교통과)의 결정 영역이 아님</li> </ul>	

<b>자전거/공유PM 타다가 사고날 뻔한 적이 많아요.</b>	철도교통과
<p><b>추진 중</b></p> <p><b>안산시 스마트 PM 스테이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3. 5. ~ 12.</li> <li>• 사업비 : 비예산사업(기업MOU)</li> <li>• 주요내용 : 무선충전 주차거치대 설치</li> <li>• 기타 : 주차시 리워드(포인트) 지급 및 인근상가 사용</li> </ul> <p><b>향후 계획</b></p> <p><b>2024년 추진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조성사업</li> <li>• PM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판 추가조성</li> </ul>	

<b>의도치 않게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b>	청년정책관
<p><b>추진 중</b></p> <p><b>고립·은둔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b></p> <p>고립·은둔 청년 발굴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 후 기존 추진중인 사업(청년 도전지원사업, 상상대로 청년종합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사회 재적응 지원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4. 3. ~ 12.</li> <li>• 사업비 : 20,000천원</li> <li>• 청년관련 기관 관계자, 동 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li> <li>• 청년지원 정책발굴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진행</li> <li>• 사회적 관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li> <li>• 기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사업 연계 추진</li> </ul> <p><b>향후 계획</b></p> <p><b>2024년 추진사업</b></p> <p><b>2023년 추진사업(1단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기관 협조 요청</li> </ul> <p><b>2024년 추진사업(2단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체계 구축 및 실무자 대상 워크숍 진행</li> </ul> <p><b>2025년 추진사업(3단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거점기관 운영 및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li> </ul>	

<b>범죄가 일어날까봐 무섭고 불안해요.</b>	자치행정과
<p><b>추진 중</b></p> <p><b>로보캡순찰대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연중</li> <li>• 사업비 : 280백만원</li> <li>• 근무일 : 매주 월~금 (공휴일 제외)</li> <li>• 근무시간 : 07:00~11:00/13:00~17:00</li> <li>• 순찰구역 : 관내 초중고 학교주변, 우범지역 등</li> <li>• 순찰인원 : 30개조 60여명 순찰</li> </ul> <p><b>자율방범대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연중</li> <li>• 사업비 : 783백만원</li> <li>• 근무일 : 매주 월~토</li> <li>• 근무시간 : 21:00~익일1:00</li> <li>• 순찰구역 : 관할 동 지정구역</li> <li>• 순찰인원 : 4명 이상</li> </ul> <p><b>기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예방 및 지역 치안은 경찰의 주된 업무로 민관경 협력을 통해 치안 활성화 가능</li> </ul>	
<b>도시정보센터</b>	
<p><b>추진 중</b></p> <p><b>이상동기범죄 사전예방 방법CCTV 구축</b></p> <p>2024년 본예산 상정하였으며 예산 확정시 사업 추진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li> <li>• 사업비 : 700,000천원</li> <li>• 주요내용 : 문지마 범죄를 대비한 다중밀집지역 방범 CCTV 20여개소 설치</li> </ul>	

**추진 중**

**안산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B2층
- 사업기간 : 2020. 12. 10. ~ 2025. 12. 10.(5년)
- 사업비 : 271,375천원(2023년)
-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통, 연구, 학습, 여가활동에 편리한 공간 제공
- 스마트 편의시설 체험 공간 제공

산업진흥과

**검토 중**

**안산 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홍보**

- 문화시설(안산시 평생학습과 운영) :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의실, 동아리실 등
- 평생학습원 등록 동아리, 시민을 위한 모임 및 학습공간 제공

**한계점**

-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등 실질 운영은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여 부서간 협조가 필요

노동일자리과

**검토 중**

**안산 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홍보**

**노동자 복지시설 이용 홍보 활성화**

- 산단 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선부동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

**노동자 복지시설 청년대상 지원 프로그램 개설 검토**

- 청년대상 노동법률 강좌 및 청년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등 신설

**한계점**

-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비 및 인력 범위 내 추진으로, 해당기관 사전 협의 필요하며 기존 추진 중인 사업 축소 및 변경 검토 필요

## 4. 2. 전문가 첨언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책토론회의 취지는 수요자의 니즈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형식적인 행사가 될 때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의 취지와 진행 과정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의제의 다양성과 아이디어 발굴 과정 측면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경험과 문제가 잘 녹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는 다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충분히 참고하고 고민해 볼만한 키워드로 도출된 것 같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정책 변화를 위한 과정일 뿐,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책분야에 있어 비전문가인 청년들이 만든 아이디어는 전문가인 공무원들의 손길을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 또는 서비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의제와 관련하여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그 효익을 체감하기 어렵다면, 사소하지만 그것은 ‘문제’이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의 유무로 대응하기보다 기존 사업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이나 서비스의 개편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 더 세심한 검토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2023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운영위원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강 동 선**

## 5.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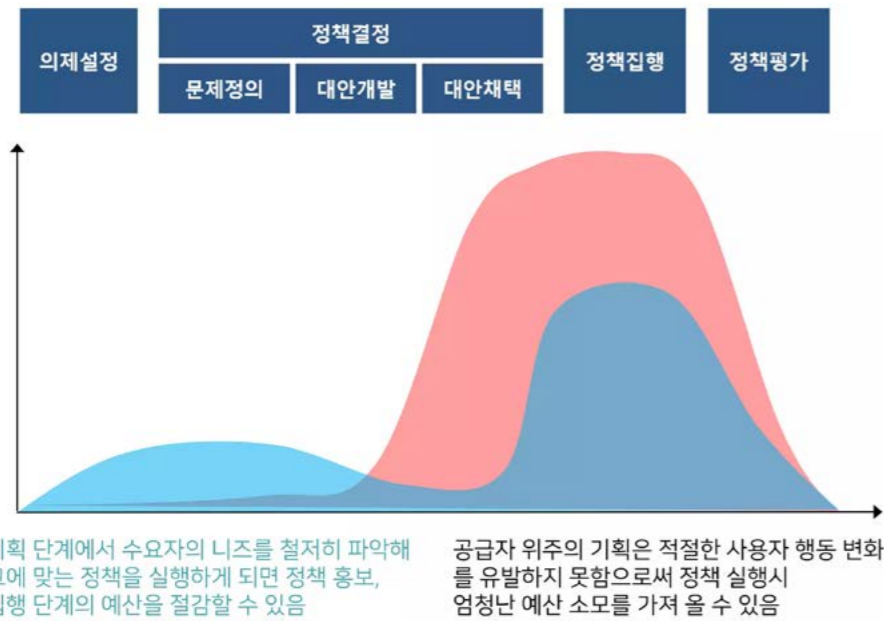
### 토론 진행과정 개선

청년정책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는 현장 적용을 위한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다소 두리뭉실한 아이디어가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을 제시하는 의제화, 토론 참여자의 의제 관련 정책 현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첫째, 공무원, 정책 수요자,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는 의제 구체화 워크숍 진행
- 둘째, 토론 전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 참여자 대상 사전 자료 제공
- 셋째, 의제 관련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토론 참여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서비스를 위한 기관/부서간 협력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살펴보면, 기관 또는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만 대응할 경우 실행 자체가 어렵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청년정책토론회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공급자 중심)가 아닌 수요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처: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2015, 윤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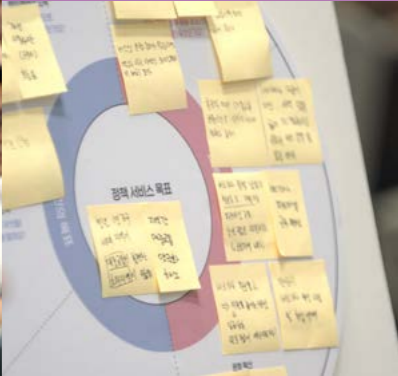
### 균형잡힌 정책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 소통 노력

청년정책토론회 이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청년들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실행된다면 언제쯤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전년(’22) 청년정책토론회에도 참여했던 청년은 “전년에 토론회장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은 토론회장에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다”며, 아이디어가 미흡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루었던 우리의 경험에 주목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거라 말했습니다.

수요자(청년) 요구 파악 - 정책 현안 조사 - 주요 문제 원인 분석 - 아이디어 발굴 및 점검 - 현장 적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소통이 원활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서비스가 만들어질거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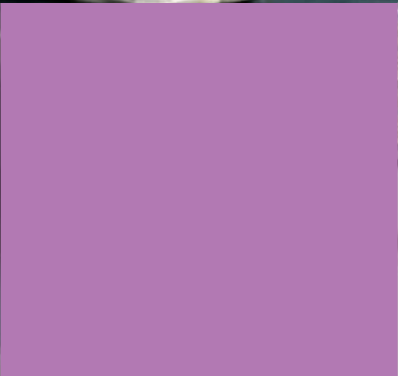


talk!



우리는 청년정책 메이커!  
청년 일상 문제 해결 한발짝!

talk!



2023 안산시 청년정책토론회



End Document